



반구정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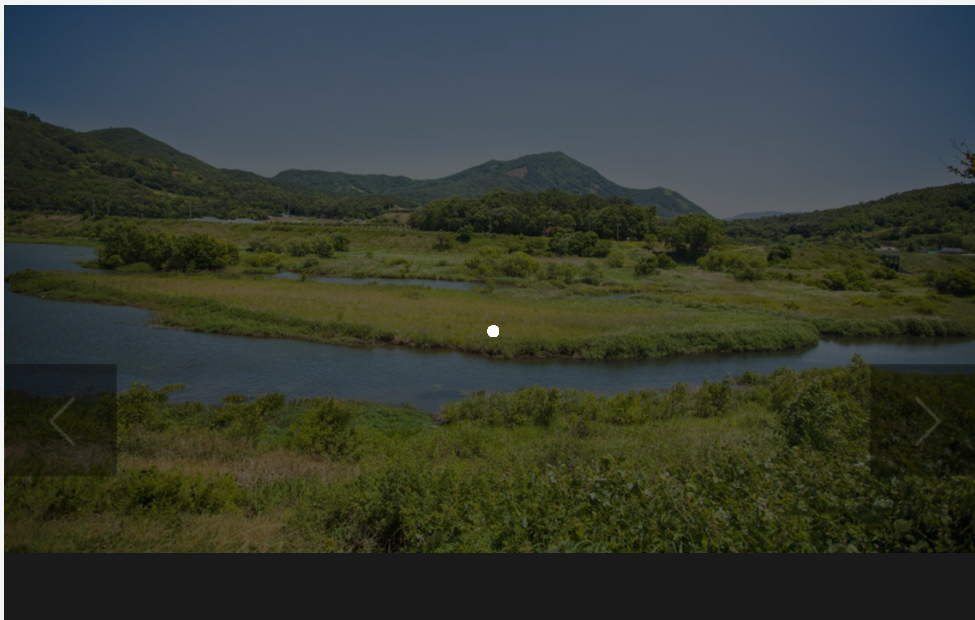
📍 주소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34-1
☎ 전화 061-360-7411
❤ 추천 1

이용시간 연중개방
 휴무일 연중무휴
 이용요금 무료
 주차시설 없음
 장애인시설 없음

관심여행담기

추천하기

대항강을 굽어보는 언덕 위에 서있는 '반구정'이라는 정자이름을 따서 대항강 만곡부에 형성된 습원을 반구정 습지로 부른다. 김감 선생은 문무를 두루 겸비한 조선 인조 때의 명신이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자 선생은 두 아들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여, 임금을 구출하고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진격하지만, 인조임금의 항복소식을 접하고 비탄에 젖어 고향 석곡으로 내려와 은거한다. 선생은 강 언덕에 올라, 이곳의 빼어난 경치를 감상하는 것을 즐겼다. 시를 짓고 노래하며 세상에 초연한 삶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작고 소담한 정자 반구정을 앉혔다고 전한다. 애초에 김감 선생이 지은 반구정은 주춧만 남아있을 뿐이라서, 지금 정자는 최근에 지어진 것이다. 이곳에 제방이 들어서고, 주암댐으로 물길이 막히면서 반구정 습지의 많은 부분이 농경지로 개간 되었고, 김감 선생의 시심을 불러일으키던 아름다운 옛 모습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반구정 습지는 아직도 온갖 종류의 조류들이 날아들고 무수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반구정 습지는 산책 데크가 잘 갖추어져 있어, 도보 혹은 자전거를 타고 둘러 볼 수 있다.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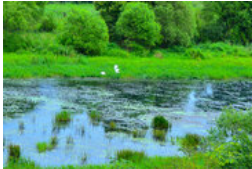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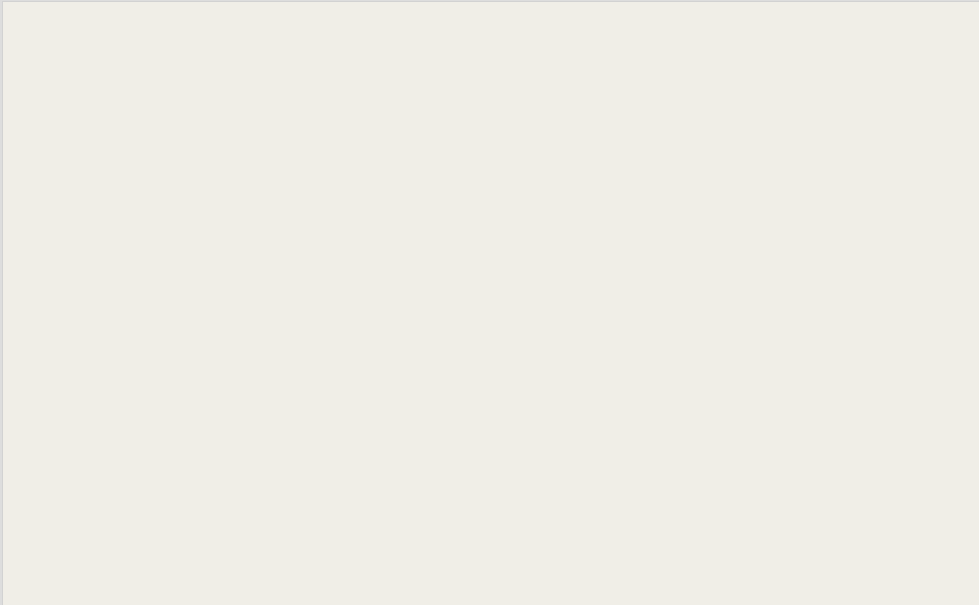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반구정습지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34-1

061-360-7411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반구정습지 :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34-

대중교통길찾기

1

목록으로

Web Contents

